군종주보

2018년 12월 30일(제909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기도하는 가정! 성가정!"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축일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닮기 위해 노력하길 다짐하고 아울러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때문에 교회에서는 매년 성가정 축일의 독서와 복음을 같은 말씀을 전하며 우리 가정 공동체에 매우 필요하고 핵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늘 곁에 두고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지요? 십계명의 1, 2, 3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계명들이고 4번째 계명부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입니다. 저는 왜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하다 문뜩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하느님의 이 말씀대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낳고 평생을 함께 출산의 고통을 나누어 갑니다. 늘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 그 삶 전체가 하나의 출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가 되어야 부모님들께서는 완전히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부모님께 출산의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는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1독서인 집회서의 말씀은 아직도 출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슬프게 하지 말며, 설혹 지각을 잃으셔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공경하라. 평생을 출산의 고통을 겪으신 부모님을 위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2독서 말씀인 콜로새서의 말씀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해야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들볶지 않는 것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독서를 좀 더 살펴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식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가정에 작은 불화가 있더라도 사랑의 끈이 그 가정을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싹트게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흘러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철천지원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저 남자만 없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생물과 같아서 양식을 주고 물을 줘야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2독서 15절과 16절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의 양식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없고 하루를, 또는 한 달을, 일 년을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 내 친지들, 나아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소중함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양식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바치는 기도는 가족 사랑의 아주 강력한 끈이 됩니다. 하루의 단 10분, 혹은 15분이라도 가족이 모여 하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날의 복음을 함께 읽는 가정은 결코 가족 사랑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진(프란치스코) 신부
진성대(공군 17전비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2,41-52
영 성 체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 문영인 비비안나



성인명: 문영인 비비안나 (文榮仁 Vivian)
신분: 중인, 궁녀, 동정 순교자
활동연도: 1776-1801년

문영인(文榮仁) 비비안나는 한양에 거주하던 중인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던 1783년에 궁녀로 뽑혔다. 그때 작은 벼슬을 하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딸들은 숨겨 두고, 어린 문 비비안나와 동생들만을 집에 데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리들은 문 비비안나의 총명함과 용모를 보고 궁녀로 선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문 비비안나는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글씨를 잘 쓰게 되자 궁궐에서는 그녀에게 문서 쓰는 일을 맡겼다. 스물한 살 되던 1797년에 문 비비안나는 병에 걸려 잠시 궁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때 그녀는 한 노파로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그 노파에게서 교리를 배웠다.

문영인 비비안나는 그 뒤,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와 알게 되었다. 그리고 1798년에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녀는 가끔 강 골룸바의 집을 찾아가 교우들과 함께 교회 서적을 공부하거나 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문 비비안나는 병이 완쾌되면서 다시 궁궐로 들어가야만 하였다. 물론 궁궐에서는 신자의 본분을 지키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 생활을 하였는데, 끝내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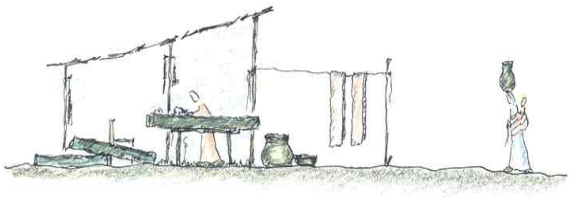
이제 문 비비안나는 신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만 노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하였으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 자주 순교의 뜻을 드러내곤 하였다. 그러다가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청석동에 집을 얻어 살면서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또 1800년에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이 한양으로 이주해 오자 그에게 집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문 비비안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순교할 때만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그녀는 혹독한 형벌 도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이후 문 비비안나는 형조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열심히 교리를 설명하면서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할 뿐이었다. 형조에서는 이제 문 비비안나의 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녀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는 동정녀로서 25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들의 일상



그들은 매일
대패질과
망치질

그리고
아이를 매고,
물동이를
날라야 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며 살았다.

성화이야기

성전에 봉헌되시는 예수님



벨리니, 1460년 作
패널 위 템페라화, 80x105cm
퀘리니 재단 소유, 이탈리아 베니스

지금 이 그림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탄과 연말연시의 부산함과 요란스러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성화이다. 검은색 배경화면 속에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클로즈업 인물 반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인물들의 차분한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한다.

아기 예수님을 싸고 있는 흰 배내옷은 예수님의 수난 후에 시체를 싼 수의를 상징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잔한 슬픔이 흐르는 분위기이다. 인상적인 점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이 벨리니의 가족들을 그렸다는 것으로, 성모님에게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있는 시므온 사이에 있는 성 요셉은 벨리니의 아버지의 초상화이며, 여인들은 여동생이나 처제,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은 벨리니의 자화상이고, 그 옆의 인물은 그의 형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3,1-2)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가정 축일: 노도 김창중 신부

◆ 교구장 동정

- 독수리(1공수여단) 성당 성가정 축일 미사
  때: 12월 30일(주일) 10:30

◆ 시무식 미사

때·곳: 1월 2일(수) 10:00, 군종교구청 1층 소성당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